

자동차

현대/기아 미국 MS 9.5%, 12년 이후 최대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90
Joonsung.kim@meritz.co.kr

6월 미국 산업수요 129만대 (-2% YoY, 이하 YoY)

성숙기에 들어선 미국 산업수요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년동월 대비 영업일수가 -4%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무난한 월간 산업수요 기록했다고 판단한다. SAAR는 1,700만대 상회해 예상되며, 연초 1,600만대 중반 수준에서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다. GM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인하가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SAAR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치를 상향했다.

일본업체의 부진 지속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지난 6월 Toyota -4%, Honda -7%, Nissan -13% 판매가 줄었으며, 2H18 이후 12개월 동안 Toyota는 10개월, Honda는 7개월, Nissan은 8개월 YoY 판매감소를 기록했다.

현대차 6.6만대 (+3.2%), 시장점유율 5.1% (+0.3%p)

13년 7월 이후 6년만에 미국 판매점유율이 5%를 상회했다. 11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 8개월 연속 YoY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다.

제네시스 판매회복 (+137%)과 SUV 판매호조 (+10%)가 판매 및 점유율 증가의 근거로 작용했다. 신차 출시를 앞둔 쏘나타 (-16%)가 감소했으나, 코나 (+50%), 쏘타페 (+36%)와 같은 신형 SUV 판매증가가 전체 판매증가를 견인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E-segment SUV 펠리세이드는 제한적이지만 첫 판매실적 (383대) 기록했다.

기아차 5.7만대 (+0.4%), 시장점유율 4.4% (+0.1%p)

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 기록했다. 9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 11개월 연속 YoY 점유율 개선이 이루어졌다.

니로 (-19%), 쏘렌토 (-37%), 카니발 (-46%), 쏘울 (-10%) 등 SUV 판매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나, 텔루라이드 (5,989대, 2월 투입) 신차효과로 판매성장세가 유지됐다.

현대차 · 기아차 합산 점유율 9.5%로 12년 7월 이후 최대치였다. 양사의 SUV 신차효과 지속될 전망이다. 양사가 기록 중인 YoY 판매 및 점유율 개선 추이 또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7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7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7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